

# 화계사, 근현대 불교변화의 중심지

## 화계사지 발간 위한 학술세미나서 목소리 모아져

화계사지 발간을 위한 '삼각산화계사의 역사와 문화' 학술세미나가 1월 1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화계사 스님, 신도 등이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세미나는 잠정 5시간에 걸쳐 발표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 그리고 방청객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는 진호 스님이 편찬한 <삼각산화계사역사>를 기반으로 화계사의 불교사적 가치와 역사성, 근현대 역사문화 등 5개 분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이 좌장을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다.

글 통일 운동과 화계사' 등 관련자료 검토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 연구교수는 "화계사의 근대사는 선구적이지 진보적"이라며 "시대를 앞서가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 화계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에 덧붙여 "개화기 화계사에서 이동인 스님이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동인, 무불, 차홍식 등 근현대 지식인들이 화계사와의 유대를 이어갔으며 거사불교의 움직임이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또 "화계사에서 한글운동

### 1522년 탄문 대사 범등 이은 곳 근현대 지식인 활동 전개 도량 1964년 중앙총림 임시 지정 되기도

이 일어났으며 1964년 7월 조계종단에서 승가교육 도제양성차원에서 화계사를 중앙총림(中央叢林)으로 지정했다가 성사되지 못한 점, 동국대 종비생 기숙사 백상원을 화계사에 지어 지금까지 이르게 한 점을 보면 불교현대화와 불교발전 위한 담론이 화계사에서 잉태됐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제 3주제로 <승산 행원 선사의 선사상>을 발표한 신규택 연세대 교수는 승산 스님에 대한 발표를 크게 둘로 나누어 선종 역사에 대한 승산 스님의 역사인식과 선종 사상에 대한 승산 선사의 철학적 견해를 살폈다.



제 4주제로 <화계사 가람의 특성과 역사성>에 대해 김성도 문화재청 시설사무관은 조선시대 작성된 문헌 기록 및 당시 건축된 건축물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성과 역사성을 고찰했다.

김 사무관은 "화계사가 개창 시기에는 아름다운 꽃과 맑은 시내로 유명한 암자"였으며 "탄문 대사의 범등을 이어 1522년에 초창돼 선종의 범맥을 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세월이 흐르며 정토 신앙과 열불수행이 크게 성행했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염불이 쇠퇴하며 다시 선종 중심지로서 바뀌었다"고 말했다.

## “차분한 마음으로 불교문화 느껴보세요”

### 불교전시실 새 단장 한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

“불교문화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보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채광과 조명을 개선해 많은 관람객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교조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 역광 등으로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시물의 무게로 공간 배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인

해 관람객들이 불상의 미를 보다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실 전체에 타공 금속판과 암막 스크린을 둘러 배경벽을 설치하고, 자연광을 차단하는 대신 간접조명을 설치했다. 또 실내 바닥과 벽, 천장을 단열 톤으로 통일했다. 동시에 LED 조명을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이 밖에 스마트폰 근거리정보태그(NFC) 기능을 활용한 문화재 정보 제공도 실시된다. 스마트폰을 N표시가 된 부분에 대면 전시물의 사진 다운로드를 비롯한 해설, SNS를 이용한 감상평 등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 관장은 "불교전시실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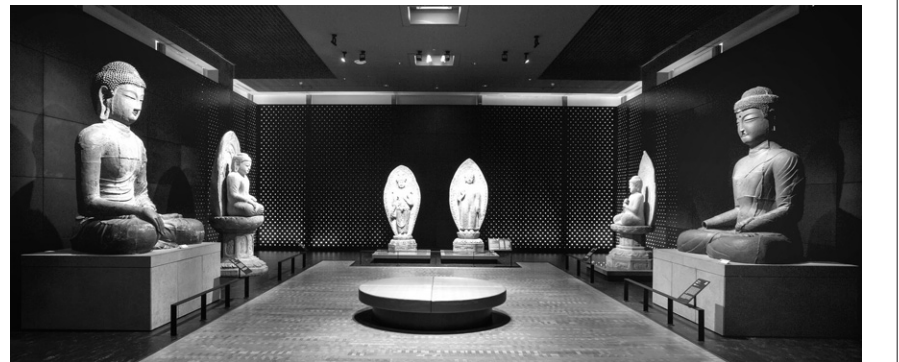
이러 김 관장은 "그동안 불교조각실

는 역광 등으로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시물의 무게로 공간 배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불상의 미를 보다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실 전체에 타공 금속판과 암막 스크린을 둘러 배경벽을 설치하고, 자연광을 차단하는 대신 간접조명을 설치했다. 또 실내 바닥과 벽, 천장을 단열 톤으로 통일했다. 동시에 LED 조명을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이 밖에 스마트폰 근거리정보태그(NFC) 기능을 활용한 문화재 정보 제공도 실시된다. 스마트폰을 N표시가 된 부분에 대면 전시물의 사진 다운로드를 비롯한 해설, SNS를 이용한 감상평 등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 관장은 "불교전시실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전경.

# 사이의 강남스타일에 불교의 다양성 녹아 있다

## 자현 스님, 학술지 <文·史·哲>에서 분석 논문 눈길



불교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자현 스님이 인문학 계간지 <문학·사학·철학>지(2012 겨울·2013봄호)에 흥미로운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사이(psy)의 강남스타일을 통해 본 한국문화의 재발견'이란 논문을 통해 자현 스님은 사이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을 진단했다.

자현 스님은 논문에서 사이의 '강남스타

일'의 성공 배경에 한국적인 특수성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민족대이동을 겪었으며 민족적인 잡종(섞인) 상황을 맞이해 변화의 중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유교적 영향 등으로 획일화된 사회는 변화를 맞았으며 젊은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방향으로 좌충우돌하게 됐다"며 "부모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고학력과 외국생활의 경험들이 쌓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력 속에서도 활활산과 같은 문화적 생산을 꽃피고 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이어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실크로드 시대 중앙아시아와 같이 문명

의 잡종양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절단 전자제품과 게임 및 영화 등의 세계 성공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험장이자 척도로도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이 역시 잡종의 환경을 가지고

### 섞임 문화가 한류열풍 배경 사이의 문화의 다양성 대변

있으며, 사이의 경우 한국적인 혼란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주체적인 의지를 통해서 자기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현 스님은 특히 사이의 '강남스타일'에서는 종교적 영향도 드러난다고 지적했

다. 스님은 "강남 지역은 개발을 통한 급격한 변화로 개인화된 문화가 섞인 지역으로 카오스를 대변하는 공간"이라며 "사이의 노래를 통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라는 카오스를 지향하는 구조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오스는 코스모스보다 하열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편견의 판단일 수 있다"며 "불교에서는 편견을 버린 상관성을 중시한다. 이것이 바로 강남스타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스님은 끝으로 "우리 민족이 현재와 같은 성과를 이룬 것은 이러한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한 열린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며 "다양한 가능성 바탕에 인류문화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 근현대 불교문화재 목록화 사업 착수

###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의 초석 마련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가 근현대 불교문화재 목록을 자료화 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에서 학술용역으로 진행하는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분야 목록화 사업' 중 첫 번째로 실시되는 '불교문화재 목록화 작업'이다.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사업'은 1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행되며 결과물은 각 유형별, 지역별 분류를 기본으로 한 보고서와 디지털 자료로 제작된다.

이번 조사 사업은 전국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방

안을 마련하고 심화연구를 위한 초석을 생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은 "근현대 불교문화재는 100년 전에 제작된 유물, 유적 등에 비해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아 사찰정보대장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빠른 속도로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훼손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와 향후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삼보귀의하옵고!  
여래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재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강원교육과 문화교실을 통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배움의 장을 만들고 신도들을 상대로 법사를 배출하는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여래불교 조계종 종단과 함께 하실 계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 종정무여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총회 의장** 혜 견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보 성 (강원 속초시)  
**호계원장** 성 보 (경기 문산 승주사)  
**포교원장** 만 경 (강원 춘천 보통정사)  
**선원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사회부장** 제 오 (충남 금산군 광명사)

### - 입종서류 -

- 승려 및 사찰 등록 신청서 1부
- 반영함 사진 3매 · 주민등록사본 및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1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함.
- 기타 공공한 사항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교육부설 -

교육구분	대 상
강원 (4년)	비구, 비구니 양성
불교대학 (2년)	일반신도 및 법사 양성
불교대학원 (2년)	전 법사 양성
문화교실 (매주)	서예,사군자,태미도, 불교의식 등

##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2282-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 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가가 온누리에 찬탄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송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를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정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송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니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대전보문사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손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림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네요.

소송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빠르고 시큰 거려서 출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을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지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상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쪽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외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 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